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3주일(교황주일)
제32권 31호(나해) 2012.7.1

[묵상]



"자신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게 될지..."

열두 해 동안이나 하절하던 여자
의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상태만 더 나빠져 희망할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때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고 싶은 약이로
예수님을 찾아뵙고 간절히 청합니다.
제 아이가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할 수 있고
믿기지 않는 일에 믿음을 두기에
그 희망과 믿음은 위대한 것이고
위대한 사랑으로 보답 받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곳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바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성경의 “어두운”면들

하느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내로이 가르치십니다. 계시는 먼 시대의 문화적, 윤리적 차원에 맞추어 이루어지며, 명시적으로 부도덕성을 고발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관습을, 예를 들어 속임수와 폭력 행위, 민족들의 학살 등을 전해 줍니다. 이것은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인간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그리고 우리 시대에까지도 늘 저질러온 “어두운” 행위들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는 현대의 독자에게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집단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온갖 종류의 불의와 폭력에 맞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고, 이로써 하느님께서 복음을 준비하도록 당신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게 보이는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릇된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면들의 해석을 위해서는 역사적 문학적 맥락 안에서 그리고 “복음과 파스카 신비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최종적인 해석학적 열쇠로 삼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양성을 통하여 적절한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과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에 비추어 그 본문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해석을 통하여 이 본문에도 접근하도록 신자들을 도울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

43).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고찰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도출되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유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유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여러분은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친애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러한 인정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제도들에 대해 보였던 단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성경이 성취되었음을 간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 깊고 근본적인 차이는 결코 상호간의 적대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바오로 성인의 본보기는(로마 9?11 참조) “신비롭게도 하느님의 온전히 긍정적인 계획에 속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진정 유일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유대 민족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사랑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계속>

토 요	(연)김풍길 바오로, 최금옥 말찌나, 김성용 방지거
특전미사	(생)배른청년회 신임회장단
주 일	(연)이경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조지 가보라, 박영준 안토니오, 이태숙 카타리나, 고준희 제임스, 민소에 모니카, 이동숙, 김영자, 이준택, 이환선
낮 미사	(생)본당 신/구사목위원들, 신대철 알베르토, 임준자, 신대진 베드로, 김정희 올리아, 김현빈 바오로, 박명순 안나 & 김미성 에스텔, 채승희 에스터 가정, 유철희 바오로 & 유현자 안나, 김명재 아가다, 박진수 스테파노 & 박혜경 레나타 가정, 제25회남가주성령쇄신대회, 문 밥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13-15; 2,23-24

화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 으 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 이 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명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라.○

제 2독서 코린토 2서(2 Corinthians) 8,7.9,13-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복 음 마르코(St. Mark) 5,21-43

영성제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43	241	231
봉헌	264	269	304
성체	280	282	200
파견	215	243	227

주님의 은혜를 청하려면

중국 명나라의 명의 편작은 어떠한 의사라도 고칠 수 없는 여섯 가지 불치의 병, 육불치(六不治)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불치: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의 병은 자신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 / 이불치: 자신의 몸을 함부로 여기고 오직 재물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 삼불치: 옷과 음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 / 사불치: 음양의 조화를 거스르고 함부로 과욕을 하는 사람 / 오불치: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도저히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 육불치: 의사의 말은 듣지 않고 무당의 말만 믿는 사람

편작은 육불치(六不治)를 말하면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더라도 병이 중하여지고 고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을 극복하는 것은 의사의 의술 못지않게 환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병에 걸렸으면 의사의 처방과 의술을 믿고 환자 또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로 해야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노력, 그리고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절망에 빠져있는 한 여인을 구하시고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구하시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하혈로 고생하는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가산만 탕진하고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래 그분의 옷에 손을 댍니다.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출혈이 멈추고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마르 5,34)

이어서 주님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구해 주십니다.

아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그곳에 갔지만 이미 아이로의 어린 딸이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어린 소녀의 부모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청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청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솔직하면서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그 믿음에 보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하혈로 고생하는 여인은 그 병을 치료받았고 어린 소녀는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안녕, 수호천사

종이처럼 얇은 내 믿음을 몹시 자책하며
잠이 들었던 밤이었어, 네 믿음이 종이처럼
얇아도 괜찮아, 그 얇은 종이에
네 믿음을 다시 적어보렴.
그러면 천천히 내가 읽어줄게, 기억해줄게.
그러니 그래도 괜찮아, 잠에서 깬 후
그 꿈을 잊을까 옮겨 적었지.
이후 마음이 종이처럼 얇아질 때마다
누군가 그 꿈을 읽는 소리를 들곤 해.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권순길 체칠리아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박희자 마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7월

- ◆ 병자 영성체 : 5일(목) 오전 10시부터
- ◆ 성시간 : 5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남구역
- ◆ 성모신심 미사 : 7일(토) 오전 8시30분

감사합니다.

◆ 7월1일부터 2012년~2013년(6월30일까지) LA 대교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백삼위 본당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새로 조직 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전임 이재정 사도요한 총회장을 비롯, 그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최기남 야고보 신임 총회장을 포함해 새로 합류하신 사목위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합니다.

- 총회장 : 최기남 야고보
- 부회장 : 신중철 아브라함, 한창주 요아킴,
고규재 체칠리아, 박인식 토마스
- 총무 : 이남현 막시모
- 부총무 : 권순길 체칠리아, 정동호 하상 바오로,
이상철 크리스토퍼, 송호창 요셉
- 재무부장 : 오지희 요안나 ● 소공동체부장 : 박혜경 레나타
- 전례부장 : 김성현 유스티노 ● 복음화부장 : 이영석 크리스토퍼
- 종교교육부장 : 금영도 베드로
- 사회복지부장 : 차인수 안드레아 ● 시설관리부장 : 김찬구 요한
- 조경부장 : 김양금 안나 ● 청소년부장 : 남성철 베네딕도
- 체육부장 : 김용 스테파노 ● 홍보부장 : 현석주 아오스딩
- 감사 : 이병권 파비아노, 이용식 베드로
- 요셉회장 : 김대우 비오 ● 안나회장 : 한춘선 투시아
- 양업회장 : 금영도 베드로 ● 성모회장 : 최길숙 요세피아

- 제대회장 : 윤정옥 실비아 ● 대건회장 : 유석영 레오
- 자모회장 :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 원서회장 : 남주현 요한
- 배론청년회장 : 최태훈 아오스딩
- 연평회장 : 김정웅 요한 ● 빈첸시오회장 : 박홍룡 요셉
- 백삼위장학회장 : 이재정 사도요한
- 성소후원회장 : 강혜원 아네스
- 주일학교장 : 이인석 비오 ● 한국학교장 : 김화경 스텔라
- < 구역장/반장 등 소공동체 신임 임원은 후보 5면 참조 >

◆ '재미있는 영성생활' 신앙특강

- 일시 : 7월3일(화) 오후 8시 성전
- 강사 : 곽용승 요셉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 영성신학박사)

◆ "한국의방선교회 백삼위 후원회원의 밤" 안내

- 한국의방선교회본부의 총장 · 사무처장 · 후원국장 신부님과 본부후원회장단 · 미주각지역후원회장단 20여명이 본당을 방문, '감사 후원의 밤'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 일시 : 7월13일(금) 오후 6시
- 대상 : 후원회원 및 관심있으신 교우들
- 행사내용 : 외방선교회 신부님 선교활동 비디오 시청 후 브라질 바비큐로 저녁식사
- 문의 : 한창주 요아킴 ☎(213)276-3168

◆ 2012년 제25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강당(16007 Crenshaw Bl.)
- 강사 : 김세울 신부, 백운철 신부, 정현철 신부,
조영희 신부, 한상만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시 \$20)
- 문의 : ☎(213)435-7570
- 주관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봉사회 회장 김충섭 마틴)
- 후원 : 남가주사제협, 남가주평신도협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1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 7월8일(주일) : 토런스 남1반(체육복음백반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고천용	김병태	김영희	김우용
	김 옥	김종훈	김준호	남성철	박광자	박완철
	박음전	반비오	서성용	송종두	오세원	유석영
	윤 철	이경태	이병우	이석진	이영석	조준제
	최진수	한금순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 \$4,050						
미사헌금 : \$2,946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고천용	김우용	김 옥	김준호
	남성철	박광자	박완철	반비오	서성용	송종두
	오세원	이경태	이병우	이석진	조준제	최진수
	한금순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 \$3,060					
백삼위장학재단기부금 : 익명 \$20,000.00(감사합니다.)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서머캠프단 오늘주일 오후 4시경 성당 도착예정

2012-2013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접수

2차접수부터 등록금이 인상되니 서둘러 주시기바랍니다.

- 1차접수 : 여름방학전까지(6월30일 마감)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 첫째 자녀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8월5일부터(\$140, \$120, \$100, 무료)
- 자모회비 : \$40(가정당)

한국학교 소식

- 2012/13학년도 한국학교 등록 : 학생미사·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여름방학 SAT 한국어 특별반 모집

- ① SAT 기초 준비반 ② SAT 집중문제 풀이반
- * 수업시작 : 7월1일(주일)부터 학생미사후 8주간 계속
- * 등록금 : 새학기 등록자 무료

한국학교 교사 모집 : 대상 - 보조교사

- 컴퓨터 필요합니다 : 집에 혹시 사용하지 않으시는 컴퓨터 있으면 한국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김화경 스틸라 한국학교교장 ☎(310)464-7490

어린이 복사단 모집

- 봉사일시 : 주중 수,목요일 미사(오후 7시30분)
- 자격 : 첫영성체한 초등부 남녀 어린이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봉헌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4(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야외반모임(Torrance Park) 7/21(토) 낮 12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7/18(수)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교복 데오 328-1827 7/14(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형삼 요셉 375-7397 7/14(토) 오후 6시 차이나부페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7/22(주일) 낮미사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최기남 야고보 378-4183 7/17(화)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7/19(목) 오후 8시30분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7/14(토) 오후 6시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야유희(P.V. Park) 7/15(주일) 오전 10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953-7903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김금자 데레사 800-3939 7/14(토) 오후 6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P.V. 구역 합동 반모임 7/14(토) 오전 10시 라이언파크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P.V. 구역 합동 반모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P.V. 구역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P.V. 구역 합동 반모임

남가주 소식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제3학기 과정

- 일시 : 7월13일(금)~15일(주일) 오후 6시50분-10시
- 주제 :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2625 S. Vermont Av.)
- 수강료 : \$50(1일 \$20)
- 등록문의 및 접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최대제 신부(성아그네스성당 주임)의 커피 강의

- 일시 : 7월9일(월) 낮1시, 7월12일(목)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수강료 : \$50(각반 15명 씩) *신청 : 아그네스 성당 사무실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	--

미사와 스마트 폰

얼마 전 스마트 폰에 '매일미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미사때 매일미사 앱을 실행하면 제1독서, 제2독서, 복음, 보편지향기도 등 매일미사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미사 중에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뒤통수가 따갑다. 다른 신자들이 '덜컹한 어른이 미사는 안보고 애플처럼 스마트 폰으로 장난치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스마트 폰을 무릎에 놓고 혼자만 보다가 이제는 손에 들고 뒤쪽에 앉은 신자들이 다 보이도록 사용한다. 스마트 폰 화면에 뜨는 내용을 보고 오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미사 때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너무 편리함에 젖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다. 신자라면 작은 불편을 감내하고 희생과 봉사의 자세는 기본 아닌가. 미사에 필요한 책 몇 권 들고 다니는 것을 귀찮아하는 내 모습을 하느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릴 적 성당 다닐 때가 떠올랐다.

성당까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논과 미나리밭을 지나 1시간쯤 걸어야 했다. 산 중턱에 있던 성당 바닥은 마룻바닥이었다. 겨울 마룻바닥은 차가웠고, 10여 개밖에 없던 방석은 어른들 차지였다. 어찌다가 마룻바닥에 웅이구멍이 난 곳에 앉으면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 웅이구멍으로 찬바람이 나왔다. 성경책으로 구멍을 막아도 냉기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됐고 1시간 30분 이상 걸린 것으로 기억한다. 성당에 가려면 왕복 소요시간과 미사 시간을 합쳐 4시간 가까이 걸렸다. 꿇어앉아 미사를 보는 것도, 추위 속에서 성당을 오가는 것도 힘들었다. 새벽 미사에 다녀온 날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요즈음 미사는 너무 수월하다. 의미도 모르는 라틴어를 따라 할 필요도 없고, 성당도 가깝다. 추우면 난방을 하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다. 어릴 적 미사 참례를 떠올리며 스마트 폰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매일미사 책과 성가책, 가톨릭 기도서 등을 갖고 성당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어릴 적 미사는 힘들었지만 성당을 다녀오면 뿌듯했었다. 추위와 불편을 견디었던 내 영혼은 그 시절이 더 맑았었다. 다시 책을 들고 미사에 참례하니 전혀 다른 맛이 와 닿는다. 종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주요 부분에는 줄을 긋기도 하고, 신부님 강론을 매일 미사 책 한쪽에 메모도 한다. 그래도 편리한 스마트폰 매일미사 앱은 버릴 수 없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김상진 요한 / 중앙일보 · JTBC 부산총국장

☞ 독서와 복음이 봉독된 후 응답이 다른 이유?

셰마(Shema)는 히브리어 명령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6,4-5)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낭송하는 신앙고백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미사 중 말씀 전례의 핵심 내용은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를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지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례는 하느님 말씀을 먼저 듣고 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1독서 말씀을 듣고 ‘화답송’으로 응답하고, 이어서 제2독서 봉독 후에는 ‘복음 환호송’으로 응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강론을 듣고 신앙고백으로 응답합니다.

구약의 제1독서와 신약의 복음은 ‘주제’가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독서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전한다면, 복음에서는 ‘회개’에 대한 주제를 듣습니다. 구약성경은 구세주를 보내시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을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독서 봉독 후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고, 복음 봉독 후에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기에 성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나, 성자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구약의 백성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반하여도 자비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그 약속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성취되었음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서울대교구 독산1동성당 주임